

인종평등 선교주일



열린 가슴, 열린 마음, 열린 문.

한인연합감리교회®

인종평등 선교주일



우리가 드리는 인종평등선교주일 특별헌금은 지역사회 지도력과 자원을 구축하는 데 쓰입니다. 시카고 지역에서는 교회들이 연대하여 소년원 수감을 대체하는 지역 기반 대안적 교정 사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필리핀의 마닐라 북부 공동묘지(North Manila Cemetery) 지역에서는 약물 중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 사회 단체들이 협력하여 가정의 회복력을 강화하는 사역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콩고 공화국에서는 연합감리교회들이 초교파적 파트너들과 연합하여 수감 중인 아동과 청소년에게 목회적 지원을 제공하는 한편 그들의 인권을 옹호하는 사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그동안 인종평등선교주일 특별헌금의 지원을 받아 지역사회를 위한 사역을 감당했던 몇몇 지도자들의 간증입니다:

“저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그들이 우리 부에나 비스타(Buena Vista)와 같은 다민족 다세대 교회에 끌렸던 이유에 대해 들었습니다. 첫째는 우리 교회의 엄청난 환대와 개방성이었고, 둘째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가치에서 시작된 우리의 대사회적 사역이었습니다. 우리 교회의 슬로건은, <사랑받는 공동체 만들기>입니다. 우리 교우들은 이를 가슴에 새기고 살고 실천으로 보여줍니다.”

- 리넷 리, 캘리포니아주 알라메다, 부에나 비스타 지역 협의회 의장

“비컨 센터는 하워드 서먼이 말했던 상속을 받지 못한 사람들, 교회가 등을 돌린 사람들, 예수님께서 온전성의 회복을 위해 그들의 지역사회에서 육체적, 정신적, 정서적, 관계적, 경제적 - 즉 종합적 사역의 대상으로 삼으셨던 사람들과 함께 걷고 그들의 필요에 대한 인식을 환기하는 도구입니다.”

- 조셉 대니얼스 목사, 워싱턴 D.C., 에모리 펠로우십 연합감리교회

“모터 스포츠 프로그램은 모든 STEM(과학, 기술, 공학 및 수학) 분야를 총망라하는 도구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청소년들은 목표를 설정하는 방법뿐만 아니라 그를 달성하기 위한 과정을 계획하는 방법도 배웁니다. 현장학습을 통해 청소년들은 다양한 분야의 직업 성공 사례에 대해 직접 듣고 보게 됩니다.”

- 제임스 하퍼, 펜실베이니아주 체스터, 그레이스 커뮤니티 연합감리교회 및 임파워먼트 센터



열린 가슴, 열린 마음, 열린 문
한인연합감리교회®

인종평등 선교주일



적극적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인종평등선교주일은 연합감리교회 전체가 교단적으로 지키는 여섯 개의 특별선교주일 중 하나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도구나 자원의 부족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주신 잠재력에 도달하지 못하는 지역 사회의 구성원들에게 긍정적 영향을 끼칠 기회를 부여받습니다.

작년에 겪었던 여러 문제를 통해 우리는 체계적 불평등이 가장 취약한 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보았습니다.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것보다 교단 전체로 함께 연합할 때 우리는, 가난을 경험하며 더 적은 사회적 자원만이 허락된 지역에 사는 이웃들을 위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예물은 신앙에 기반한 자원봉사 프로그램, 지역사회 개발자들, 위기에 처한 청소년을 돕는 프로그램들을 후원하여 사랑받는 공동체를 만드는 데 쓰입니다. 우리 사회도 이번 보건/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프로그램들은 가장 큰 영향을 받은 지역 사회들을 강화하는 필수적인 것들입니다.

개인 체크의 메모란에 “인종평등선교주일”을 명시하여 여러분의 교회에 헌금해 주세요. 온라인 후원이나 매월 정기 후원을 원하시는 분들은 [UMC.org/SSgive](https://umc.org/ssgive)를 방문해 주세요.